

다니엘서 - 번호 93

로마의 예언적 삼부작의 베일을 벗기다: 고대 이교에서 현대의 기만까지

Jeff Pippenger

2024-02-26

다니엘서는 환상을 확립하는 주체가 로마임을 밝히고 있으며, 윌리엄 밀러가 이 사실을 밝혔을 때 그 이해는 밀러주의 역사 속 개신교도들의 반대를 받았다.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환상을 확립하는 것은 로마이며, 오늘날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주의는 이제 "네 백성의 약탈자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타락한 개신교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지나쳐지고 있던 언약의 백성들은 바로 그 동일한 진리를 거부했으며, 지금 지나쳐지고 있는 마지막 때의 언약의 백성들도 그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 솔로몬이 잘 말했듯이:

이미 있었던 것이 장차도 있을 것이요, 이미 행한 것이 장차도 행해질 것이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느니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느냐? 우리 이전의 옛 시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서 1:9, 10.

예언의 관점에서 로마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으며, 처음 두 가지 모습이 셋째의 특징을 밝혀 준다. 이는 진리가 두 사람의 증언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으면,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게 하려 함이다. 마태복음 18:16.

이교 로마의 종교는 이교였고, 이교는 참된 종교의 모조물이다. 다만 위폐 같은 의미의 위조라기보다는, 이교는 실제로 참된 종교와는 전혀 닮지 않는다. 그러나 예언적으로는 모조의 특징을 지닌다. 로마 도시는 예루살렘의 모조물이며, 예루살렘 성전의 모조품인 신전(판테온)을 갖고 있다. 이교의 종교적 관습은 거룩하지 않고 악마적이지만, 그것들은 사탄의 모조 종교 관습을 나타낸다. 이교 로마 종교의 수장은 "Pontifex Maximus"라는 칭호를 가졌다. "Pontifex Maximus"는 본래 고대 로마에서 로마 국교의 수석 사제를 가리켰으며, 그 기원은 초기 로마 공화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종교적 권위와 결부되었고, 결국 오늘날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이 사용하는 칭호로 발전했다.

이교 로마의 수석 사제의 칭호는 Pontifex Maximus였으며, 교황 로마의 수석 사제의 칭호이기도 했고, '최고 대사제 중 가장 위대한 자'를 뜻하는 라틴어 용어이다. 그는 로마 국교의 수석 사제로서, 특히 유피테르 신의 숭배를 관장했다. Pontifex Maximus는 다양한 종교 의식을 감독하고 로마 종교력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등 중대한 종교적 권위와 책임을 지녔다. Pontifex Maximus는 로마 종교의 의식을 해석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맡은 사제 집단인 College of Pontiffs (Collegium Pontificum)의 수장이었다.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모두의 최고사제는 Pontifex Maximus였으므로, 현대 로마의 수장의 칭호도 자연스럽게 Pontifex Maximus일 것이다. 이교 로마의 종교는 이교였고, 교황 로마의 종교도—그때나 지금이나—기독교를 표방하여 위장한 이교였으며, 말세의 현대 로마의 종교 또한 기독교를 표방하여 위장한 이교가 될 것이다.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에는 각각 최고 권세로 다스릴 특정 기간이 있었다. 이교 로마는 다니엘서 11장 24절의 시간 예언을 성취하여 360년 동안 최고 권세로 다스리게 되어 있었다.

그는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들에도 평안히 들어갈 것이며, 그의 조상들도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도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할 것이고, 약탈물과 전리품과 재물을 그들 가운데 흠여 나눌 것이다. 또한 그는 견고한 요새들을 치기 위한 그의 계책을 미리 세우리니, 한동안 그러하리라. 다니엘 11:24.

24절의 주제는 이교 로마입니다. 그들은 16절에서 주제가 되었고 31절까지 주제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 구절들은 향후 글들에서 별도로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예언이 이교 로마가 360년 동안 최고 권세로 통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을 단지 지적할 뿐입니다. 이는 로마가 "forecasting" their "devices against the strong holds, even for a time."라고 표현된 데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against"로 번역된 단어는 실제로 "from"을 뜻하며, 그 구절은 로마가 "strong holds", 곧 로마 시 "로부터" 세계를 주도할 것이며, 그것을 "한 때", 즉 360년 동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교 로마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패권을 쥐었고, 콘스탄티누스가 제국의 수도를 로마 시라는 견고한 보루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시로 옮긴 서기 330년까지 그 지배를 이어갔다. 그리고 나서 제국은 악명 높은 쇠퇴를 시작했다. 로마 도시는 이교 로마를 위한 예언상의 '견고한 보루'였으며, 그 도시에서 통치할 때 로마는 무적이었다. 콘스탄티누스의 권력 이전 이후 벌어진 전쟁에서 로마 도시는 겐세릭과 침입한 야만 부족들의 공격 목표가 되었는데, 이들은 요한계시록 8장의 처음 네 나팔로 상징된다.

이런 이유로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교황권을 위해 일어난 '군대'(이교 로마)가 먼저 '힘의 성소'를 더럽혔다. 로마 도성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모두에게 예언적인 '힘의 성소'인데, 330년에 이교 권위가 콘스탄티노폴로 이전되면서 로마 도성은 부상하던 교황 로마에게 남겨졌다. 이런 이유로 요한계시록 13장 2절은 용(이교 로마)이 교황 로마에게 그 '좌'를 주었다고 말한다. '좌'란 권세가 통치하는 곳을 말하며, 538년부터 1798년까지 교황 로마는 이교 로마가 '한 때' 동안 절대적으로 통치했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통치했다.

예언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가 모두 절대적 통치를 행사할 특정한 시기를 지적하며, 그 통치는 그들의 권좌였던 로마 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다. 이교 로마의 무적성은 그들이 로마 시를 떠났을 때 끝났는데, 이는 24절에서 '한 때'로 표현된 360년의 종료를 의미했다. 그리고 1798년에 교황 통치의 1,260년이 끝났을 때, 나폴레옹은 교황을 로마 시에서 연행하게 했고 그는 유배지에서 죽었다.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는 현대 로마가 말세에 특정한 예언적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군림할 것임을 확증한다. "시간이 더 이상 없다"고 하지만, 말세의 교황권 박해 기간은 곧 제정될 미국의 일요일법에서 시작하여, 미가엘이 일어나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특정한 기간이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지니라."

이교도 로마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 속에서 로마 시에 있는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그리스도인 역사학자들은 교황 통치의 암흑기 동안 교황권에 의해 1억 명의 순교자들이 살해되었다고 추산해 왔으나, 교황청은 그 주장을 부인하고 추정치를 약 5천만 명으로 제시한다.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는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박해했으며, 현대의 로마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박해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투옥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시와 마을에서 도피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진리를 옹호하여 굳게 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자가 될 것이다.” 선택된 기별, 3권, 397쪽.

이교 로마는 세상을 지배해 가는 과정에서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극복했다. 교황 로마도 세상을 지배해 가는 과정에서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극복했다. 현대 로마는 1989년에 남방 왕(무신론적 소련)을 무너뜨렸으며,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이 제정될 때 다음으로 영화로운 땅(미국)을 정복할 것이다. 그 후에 이집트(온 세상)를 정복할 것이다.

사회 전체가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 두 큰 부류로 나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곧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대배교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사탄의 기치 아래 서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어기게 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짓밟음으로써 세속 정부들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도록 국가의 법을 그렇게 만들고자 힘쓴다.

사탄은 사소한 질문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 그들이 지극히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하고 또렷한 시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원수는 온 세상을 울무에 빠뜨리려 계획하고 있다.

"소위 기독교 세계는 중대하고 결정적인 사건들의 무대가 될 것이다. 권세 잡은 자들이 교황권의 본을 따라 양심을 통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연루될 것이다." 원고 발표집, 제1권, 296쪽.

다니엘 11장 41절의 '영화로운 땅'을 미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유다 지파의 사자는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예언의 삼중 적용 원칙을 열어 보이셨다. 그 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서 비추는 빛은, 다니엘서에서 'the daily'로 나타난 역사, 곧 다니엘 11장 31절에 제시된 그 역사를 그 마지막 여섯 절에 적용함으로써 확립되었다. 밀러의 예언적 체계의 열쇠가 되었던 바로 그 반석 같은 진리('the daily')가 마지막 시대의 예언적 체계 또한 형성하였다. 밀러의 체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이교주의와 교황주의라는 두 가지 황폐케 하는 세력에 기초했으며, 마지막 시대의 체계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 가지 황폐케 하는 세력에 기초한다.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 나타나 있으며, 1989년에 도래한 지식의 증가를 가리키고, 히데겔 강으로도 표상되는 그 지식의 증가는 진리의 대적들에 의해 저항에

부딪혔다. 그 저항은 예언의 삼중 적용이라는 원리에 대한 이해로 이어졌는데, 이 원리는 처음에는 로마의 삼중 적용으로 인식되었으며, 예언적 역사관을 정립하는 주제이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18.

로마의 세 가지 양상에 대한 삼중 적용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종교가 이교이며, 그들의 종교가 Pontifex Maximus라는 칭호를 지닌 한 남자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밝혀 준다. 로마의 그 두 가지 양상은, 그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통치하기에 앞서 세 개의 지리적 세력이 제거되며, 그들의 힘의 성소인 일곱 언덕의 도시 로마에서 통치할 것임을 밝혀 준다. 그들은 둘 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박해했다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그러므로 이 두 증언에 근거하여 우리는 현대 로마의 종교가 이교가 될 것이며, Pontifex Maximus라는 칭호를 지닌 로마의 교황에 의해 지도될 것임을 안다.

큰 음녀가 권력을 장악하고 절대적으로 통치하기 전에, 현대 로마는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첫 번째 장애물은 1989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이미 과거사가 되었다. 소련은 유럽에서 로마의 권세에 저항했던 무신론적 적수였다. 다음 장애물은 머지않아 미국에서 시행될 일요일법으로 무너질 것이며, 그 후 유엔이 잠시 동안 현대 로마에게 자신의 권위를 넘겨줄 것이다. 현대 로마가 완전히 권좌에 오르면 마지막 때의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 8장은 로마의 예언적 특징들을 제시하며, 이는 현대 로마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기 330년에 콘스탄티누스가 행한 로마 제국의 동서 분할이었다.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를 함께 고려하면, 로마의 이중적 본성 또한 드러난다. 동로마와 서로마를 낳은 콘스탄티누스의 분할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에 대한 두 번째 증거이다. 콘스탄티누스는 동방에는 세속 권위를 세우고, 서방에는 교권을 남겨두었다. 이교 로마는 국가 통치를, 교황 로마는 교회 통치를 대표했다. 동방은 국가 통치, 서방은 교회 통치였으며, 이는 다니엘서 2장의 철과 진흙, 다니엘서 8장의 남성적 뿔과 여성적 뿔, 다니엘서 7장의 맹수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의 성소의 짐승들로 예표되었다.

현대 로마는 또한 교회와 국가, 철과 진흙, 그리고 교권과 정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적 성격을 지니겠지만, 현대 로마는 또한 삼중적 성격도 지닌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서방과 동방 로마는 문자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셋으로 나뉘었다. 동방 로마에서 통치하던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왕국을 세 아들에게 실제로 나누어 주었고, 서방 로마는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삼중적 정부 형태를 나타내는 태양과 달과 별로 상징되었다. 그러므로 현대 로마는 교권과 정권의 이중성이면서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상징되는 삼중 연합을 또한 나타낼 것이다.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양상들은 최후의 현대 로마가 지닌 복합적인 예언적 구성을 드러낸다. 곧 시행될 일요일 법령에서 이루어질 그 삼중 연합이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짐승의 우상'이며, 이는 정교 결합의 상징이다. 그 수장은 로마 시에서 통치하는 폰티팩스 막시무스이며, 그곳은 그의 권력의 본거지다. 불법의 사람의 세속적 권위는 유엔이 부여할 것이고, 세계는 미국의 강제력에 의해 적그리스도의 세 겹이면서도 이중적인 체제를 받아들일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이교 로마(용)가 교황권에게 '그의 권능과 그의 보좌와 큰 권세'를 준 것처럼, 이교 로마로 예표되는 미국이 현대 로마를 위해 동일한 세 가지 일을 수행한다. 그 보좌는 일곱 언덕의 도시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 시국이며, 그 권위는 유엔이고, 그 권능은 미국이다. 그들은 함께 세상을 교황권이 '그의 끝에 이르고,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그 물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올 길이 준비되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귀신의 영들로서 땅의 왕들, 곧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날에 있을 전쟁으로 그들을 모으려 함이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았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 성전에서, 곧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되었다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16:12-17.